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67)(5/19/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3 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계함, 2 절

사 9:6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출 35:31 -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호 6:6 -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골 1:9 -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2. 많은 것들을 읽고 배운 후에는, 언제나 하나의 원리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이는 “나”이고(시 94:10), 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사람이 전수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지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신속하게 지혜롭게 되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지만, 나를 섬기는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선생들의 선생이시고 천사들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변론을 청취하시고 각 사람의 양심을 살피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등불을 비추시고서 살살이 살피실 것이고(습 1:12; 고전 4:5), 어둠에 감춰진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던 사람들의 혀는 침묵하게 될 것이다.

말씀과 해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욥 12:13 -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사야 9:6 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 9:6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모사의 기묘자’라는 된다. 영어 번역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기묘한 모사’ 혹은 ‘놀라운 모사’(wonderful counselor)로 번역했다. 이 때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이고, ‘기묘한’은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메시아가 ‘기묘한 모사’가 된다는 말은 메시아는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모략과 재능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탁월한 지혜자이며 상담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지성의 근원이다. 모든 지혜와 함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 출 35:31 -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 왕상 4:29-34 -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33.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임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어리석은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성과 지혜를 의지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상담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더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역사이다. 성령은 지성의 영이시다. 엡 1:17-19 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는 지성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한다.

엡 1:17-19 -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원임을 아는 성도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다.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기 위함이다.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쓴다. 호 6:6 -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골 1:9 -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세상을 알 수가 없다. 설사 세상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을 아는 그 값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 3:7-9 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빌 3:7-9 -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재주로 삶을 영위하려고 해서 안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지성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구하자. 나의 복잡한 삶의 문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총명한 지혜와 지식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이란 터키 태일, 인도네시아 하영광, 말레이시아 홍리브가, 키르키즈스탄 홍페밀리)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풍성한 복음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인생의 각종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의 치유, 회복, 위로의 은총을 허락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